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0월 27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 정신건강팀장 함춘영 ☎440-1581 • 담당자 심연희 ☎440-158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생명존중 언론문화 조성 위해 심포지엄 개최
- 27일, “생명존중 저널리즘 변화와 미래” 주제로 심포지엄 열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언론의 생명존중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생명존중 저널리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언론인, 자살예방실무자 등이 참가했다.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또 다른 자살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서는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준수하도록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도 자살사건이 보도되면서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자살보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자살보도의 영향과 사회적 책임 관련 주제 발표 연자로 나선 권영철 대기자는 “잘못된 자살보도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들어 긍정적인 보도 사례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총괄본부장을 좌장으로 강승걸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이창욱 인천일보 사회부 기자, 위준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발표 이후 언론인이 이를 인지하고 지키려는 변화는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장소 등이 기사에 명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 관심을 가지고 권고기준을 지켜 언론이 자살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시 자살예방센터도 자살보도 방향이 바뀌자 자살률이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¹⁾에 따라, 인천지역 자살사건 보도기사를 모니터링하여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정정요청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김석철 시 건강보전국장은 “올바른 자살보도가 생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언론의 생명존중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건강자가진단 및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동아사이언스(2021. 7. 22.), “유명인 극단적 선택 보도 기조 바꾸자 ‘베르테르효과’크게 줄었다.”

<행사사진>



2022년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언론보도 심포지엄

생명존중 저널리즘, 변화와 미래

10. 27. Thu 10:00 - 12:00

장소 송도컨벤시아 1층 회의실 116호

대상 언론 기자, 보건소 및 정신건강기관 실무자, 관공서 홍보담당자, 대학생 등

사 회 | 배미남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발 표 | 자살보도의 영향과 사회적 책임
권영철 CBS 노컷뉴스 대기자
좌 장 |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총괄본부장
토 론 | 강승걸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이창욱 인천일보 사회부 기자
위준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장



참여신청QR

주최 | 인천광역시 주관 |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문의 | 교육연구팀 032-468-9917(내선2)